Gary Yates 박사, Jeremiah, 강의 4,
역사적 배경, 국내

© 2024 Gary Yate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네 번째 발표에서 Dr. Gary Yates입니다. 이번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과 예레미야서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사역의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이 세션을 계속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예레미야에 대한 존경심과 존경심을 높이는 것 중 하나는 그가 절망적으로 끔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했고, 자신의 나라를 종말로 몰고 간 위기를 다루었으며, 투옥과 박해와 고난을 개인적으로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반대. 그리고 지난 세션에서는 국제 역사와 예레미야 사역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물러갔고,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자리를 잡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배가 세 가지 기본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605년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시리아-팔레스타인을 장악한 후 첫 번째 포로 물결에 다니엘을 데려갔습니다. 597년에 느부갓네살은 요아킴의 반역에 대응하여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두 번째 포로의 물결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포로의 물결은 기원전 587-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을 때였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구약 전체를 통해 경험했던 가장 큰 신학적 위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특강에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국내 역사와 이 위기에 대응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부 왕들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특히 이러한 배경에 중요한 예레미야서 21장과 22장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상황을 그의 상황에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윗 가계의 마지막 대표자였던 유다 왕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왕위에서 폐위시키기 전의 유다 왕들과 교류한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의 핵심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에는 무조건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한 아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위와 그의 통치권과 그의 왕위를 영원무궁토록 견고케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다윗의 왕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때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왕의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에는 조건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아들이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만일 그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나는 사람의 채찍으로 그를 벌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반응에 따라 각 다윗 왕의 축복이나 심판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이 왕좌에서 물러나야 마땅해 보일 때에도 언약의 약속과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다윗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다윗은 나중에 밧세바와 함께 죄를 짓고 자기 자녀들에게 온갖 상심과 슬픔,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안겨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을 위해 한 아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심지어 이 간음한 관계에서 나온 아내 밧세바에게서도 후일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많은 결혼으로 인해 생애 말년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왕에게 해서는 안 될 일 세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모아서는 안 되었다. 그는 금과 보물을 쌓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어겼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폐하시고 다윗의 약속을 폐하신 때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왕국의 많은 부분을 빼앗아가심으로 다윗 가문을 벌하셨습니다.

왕국은 다른 왕을 따르는 북쪽 열 지파와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충성을 유지한 남쪽의 두 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미안하지만 열왕기상 15장)에서 우리는 아비야라는 이름의 솔로몬의 손자에 대해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으나 그 장 4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남겨 두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매우 경건한 왕의 시대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아합의 집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배교하게 했는지 기억합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을 그 집안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협정과 동맹의 일부인 딸 아달랴는 실제로 왕가를 멸절시키기 위해 유다의 통치자가 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다윗의 언약이 한 어린 아기의 생명의 실에 달려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달랴가 자신의 통치와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손자들을 멸절하고 살해하고 살해하는 동안 유모는 왕의 아들 하나를 모아 데려가 숨어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가 왕족 메시아 계열에 대한 거의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이 지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므낫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가문의 어떤 왕들보다 더 오래 통치했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좌에 오르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는 또한 다윗 가계에서 가장 나쁜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오기 전에 그보다 앞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므낫세는 예루살렘을 유혈과 폭력과 불의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지독히 사악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주님은 므낫세의 이 엄청난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예루살렘을 접시처럼 닦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반세기 전이며 유다가 왕위에 오르기 전이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의 죄, 솔로몬의 배교, 아비얌의 약함, 여호사밧의 결혼 동맹, 므낫세의 부패 등 이 모든 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가문을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요소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순종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만일 그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람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리라.

그리고 아마도 그 최초의 예언이 주어졌던 당시에도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형벌이 유다 왕들을 보좌에서 제거하고 다윗 가계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만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다 나라의 멸망일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다윗 가계의 제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련 속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과 맺으신 언약의 조건적인 측면을 강조할 것입니다. 다윗 가계가 지속될 유일한 길, 그것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매를 맺고 신실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강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이 사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핵심 구절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싶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 언약의 조건적 요소와 무조건적 요소 모두의 맥락을 염두에 두십시오.

너는 유다 왕의 집에 이르기를 다윗의 집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침에 공의를 행하시고 강탈당한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나의 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꺼질 사람이 없게 하라.

보라, 오 골짜기의 주민이여, 오 평지의 바위여,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치러 내려오거나 우리 처소에 들어오라 말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에게 경고하셨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거나 벌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 같은 말씀을 다윗의 집에도 주신다.

아침에 정의를 실행하십시오. 네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귀하의 회선을 계속 허용하겠습니다.

시편 72편에서 솔로몬을 위한 기도에서 시편 기자는 다윗 왕이 통치할 때에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아 이 땅에 평강을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땅을 적시는 비와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예레미야 시대의 왕들은 그 이상적인 모습과 정반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조건적 성격에 대한 또 다른 강조점은, 만약 이 왕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고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윗아, 너와 네 신하들과 이 문으로 들어가는 네 백성이여. 이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만큼 왕에게도 적용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공의와 공의를 행하여 강탈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부당한 일이나 강포를 행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리고 여기에 조건부 요소가 있습니다. 4절: 너희가 과연 그 말씀을 순종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그 신복과 백성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리라.

5절, 만일 너희가 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왕좌에 군림하는 왕들이 실제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저주를 내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유다 역사에서 이 시기까지 그들이 너무 많은 흠집으로부터 보존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인 보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에 관한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는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안식일에 이 성문으로 아무 짐도 가져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이 성문으로

들어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아 병거와 말을 탄 왕들과 방백들과 그들의 방백들과 사람들 등이더라.

다시 말하지만, 다윗 가계의 권력과 통치와 통치는 언약의 약속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좌에서 제거하실 것이라는 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역의 생애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위에 오른 다섯 왕의 시대에 사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집과 그 모든 과거 역사가 마침내 사악함의 지점에 도달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이 왕좌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느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는 부통령의 자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다섯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통치하는 동안 섬기게 될 첫 번째 왕은 기원전 640년부터 기원전 609년까지 유다를 통치했던 요시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사역 27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요시야 재위 13년, 기원전 626년쯤이군요. 그러므로 요시야에 대해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유다 나라의 마지막 경건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덟 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상상 해봐. 그러나 그는 그를 돕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매우 경건한 조언자, 사제, 사람들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성전을 수리할 때 율법책, 신명기, 모세 율법의 다른 부분이 담긴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메시지를 왕에게 가져갑니다. 왕은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 표준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를 깨닫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일들 때문에 요시야는 자신이 나라를 신적인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서에서 요시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없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요시야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하나로 모을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을 북쪽 지파들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경건한 부흥을 이끌었기 때문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리뉴얼이 있습니다. 우상이 제거됩니다. 거짓 신들에게 바쳐졌던 힌놈 골짜기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불태워져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은 예레미야가 봉사하던 시절에 통치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는 요시야 이후의 왕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처럼 정의를 실천하고 집행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요시야가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스바냐라는 또 다른 선지자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시야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쳐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609년에 요시야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정말 치명적인 결정으로 내립니다. 그의 통치가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39세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이집트와 앗시리아가 바빌론과 싸우는 국제 문제에 자신이 관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요시야는 만약 앗수르 제국이 마침내 무너진다면, 그의 독립운동은 그에 의해 지지되고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앗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 사람들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요시야는 므깃도에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성기에 유다는 경건한 마지막 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시점부터 요시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 이후의 모든 통치자들은 그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그래서 일어난 개혁, 부흥, 부활,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 생각은 긍정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율법서의 사역에서 스바냐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든 성취, 요시야가 전투에서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에는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므깃도에서 죽자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암살과 젊은 대통령의 죽음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애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유다에서도 그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왕좌에서 물러난 경건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후,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에 왕위에 올라 잠시 동안만 머물게 될 두 번째 왕은 여호아하스 왕인데, 그 이름도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샬렘의. 샬렘은 아버지가 죽은 직후 왕위에 오른 왕이다.

기억하세요, 이집트 사람들은 전투에서 요시야를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앗수르와 바벨론 사람들과 전쟁을 한 후에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은 유다 땅을 거쳐 돌아올 것이며 여호아하스를 왕좌에서 제거할 것입니다. 바벨론을 지지하는 그의 아버지의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그 대신에 다른 형제가 왕위에 오를 것입니다. 여호아하스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가 이집트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왕좌에 앉아 있던 지 석 달 만에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동생 여호야김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렘의

여호아하스 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 열왕기서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패턴과 성격은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의 삶에 확립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것을 뒤집을 만한 일은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샬렘이나 여호아하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의 아들 살렘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그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그 곳을 다스리다가 이곳을 떠났으니 그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사로잡혀 간 그곳에서 죽으리니 그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여호아하스가 이집트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한 이 사람이 제거되어 끌려가니라. 우리는 아마도 또 다른 형제가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야김이 경건한 왕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609년에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597년 어느 때까지 통치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 도시를 함락시켰을 때 그는 더 이상 왕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12년 동안 여호야김이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불행한 점은 열왕기가 여호아하스에 대해 말한 것과 여호야김에 대해 같은 말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호야김은 매우 나쁜 정치적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이집트인들에 의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기원전 609년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바빌로니아인들은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인들을 물리치고 고대 근동 지역의 지배 세력이 될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에 대한 충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를 왕좌에 앉히고 바벨론에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것이 정말로 그에게 강요될 때마다 그는 바빌론에 충성을 바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마음 속에 비밀리에 이집트인들이 우리를 도와 바빌로니아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대한 충성과 이집트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602년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역대하 36장 6절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야김을 족쇄에 채워 체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성실한 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가기 전에 어떤 이유에서는 그가 충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예수님께로 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바빌론 사람들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시적으로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그들은 그가 왕좌에 남도록 허용했지만, 그로부터 짧은 기간인 598, 599년에 여호야김은 다시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597년에 예루살렘 성을 두 번째로 함락시키는 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7절에서 이에 대해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수업에서 우리는 또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이 제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의 왕위 계승은 바벨론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리석고 형편없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지만 예레미야서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사악했는지를 깊이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내용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생각해보면 예레미야의 대표적인 적대자는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적대감은 너무 커서 책에서 단 한 번도 서로 만난 곳이 없습니다. 이제 구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왕과 선지자 사이에 온갖 종류의 대결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엘리야와 아합이 있습니다.

이사야와 아하스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그가 나중에 시드기야와 의논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여호야김과 예레미야가 직접 대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사람 사이의 적대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2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여호야김에 대해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 어느 정도 통찰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유다의 지도자로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유배자들의 물결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위협과 추가 망명 가능성, 군사적 위기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22장 13절). 불의로 그 집을 짓고 불의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으로 하여금 헛되이 섬기게 하고 그에게 삯을 주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내가 하리라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나를 위하여 큰 다락방이 있는 집을 짓으라 그가 창을 내고 백향목으로 덮고 주홍색으로 칠하리라.

삼나무에서 경쟁한다고 해서 왕이 된 것 같나요? 너희 아버지가 먹고 마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요시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지냈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원인을 판단하였느니라.

그러면 괜찮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나를 알지 아니함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눈과 마음은 오직 부정한 이익만을 위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며 압제와 폭력을 행하는 데만 있느니라. 그래서 요시야는 왕의 모습을 이상으로 이룬 것입니다.

시편 72편.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며,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며,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그것은 나라를 축복하는 비와 이슬처럼 됩니다.

반면에 여호야김은 위기가 닥쳐 사람들이 식량과 생존, 자원을 위해 어려움을 겪을 때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더 크고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벽을 패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럭셔리함과 편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에게 원하시는 반응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답은 분명히 '아니요'입니다. 그는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통찰력을 얻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백성을 억압하고 종과 노예로 삼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야김은 자신의 궁전을 재건하기 위해 그들을 속박하고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 바로가 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여호야김의 사악함, 타락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야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한 적개심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보는 다른 어떤 왕이나 우리가 보는 다른 선지자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 정말 화를 내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삶에서 심금을 건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민감한 부분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여호야김의 삶에도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종종 그 말을 들었을 때 매우 적대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예는 예레미야 2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건은 여호야김 통치 초기, 즉 그가 609년에 왕이 된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다른 선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야는 예레미야의 사본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왕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우리아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 사악한 왕에게서 탈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예레미야와 같은 방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호야김은 이집트와의 정치적 관계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애굽에 사람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하인 이 사람들도 내려가느니라. 23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에게로 끌고 가매 왕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버린지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야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노, 폭력적인 반대, 박해. 신약성경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 화가 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아벨의 피로부터 역대기의 사가랴의 피까지 선지자들의 피에 대하여 너희에게 죄가 있느니라.

여호야김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세벨과 엘리야, 아합과 엘리야, 아하스와 이사야 등 온갖 종류의 분노한 대결을 봅니다. 그러나 왕이 선지자를 죽이는 모습을 실제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호야김의 삶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원전 605년, 예레미야가 20년 넘게 설교를 한 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언을 담은 두루마리를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꽤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갑니다. 심판의 말씀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성전에 간다. 그는 그것을 읽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청문회를 얻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왕은 편안한 위층 아파트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벽난로가 가고 있습니다.

2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궁전을 리모델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없습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가 칼을 가져다가 한 기둥씩 잘라내어 불에 던졌더라.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609년부터 597년까지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제 조금 뒤에 36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두루마리와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서 선지자들과 관리들은 왕이 들어야 할 두루마리를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한동안 잊혀졌죠. 그러나 요시야는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낮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응답했습니다. 그 구절은 36장에 나오는 내용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야김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옷을 찢는 대신 두루마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모든 것을 불태우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다고 합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의 왕권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알아낼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야김은 609년부터 597년까지 통치합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주요 적대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당시에 그가 두루마리를 파괴했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만일 그가 예레미야에게 손을 댈 수 있었다면,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에게 손을 댈 수 있었다면, 그는 우리야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그들에게도 했을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네 번째 왕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실제로 597년에 바벨론이 그 도시를 함락했을 때 왕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18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일이 있기 불과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야긴의 죽음의 정황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마도 유다 사람들 중 일부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그를 암살하거나 죽였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반역적인 왕을 제거한다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우리를 내버려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은 597년에 즉위합니다.

그는 18세입니다. 그러나 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과 그 성격은 여호야긴과 마찬가지로 그 특성이 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597년에 느부갓네살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도시를 함락할 때 그는 왕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겪었을 압박감과 두려움, 그리고 그 일들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코니아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 그 성읍을 함락하자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에스겔과 유다 백성의 큰 무리가 포함된 두 번째 포로의 물결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도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남은 여생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는 예레미야 22장에서 유다 왕들에게 전하는 여호야긴에 관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고니아나 여호야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는 사실에 근거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통로가 있습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록 고니야나 여호야긴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긴이 내 오른손의 인장이었으나 내가 너를 찢어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생명을 네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리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네가 태어나지 아니한 다른 나라로 던져버리리니 거기서 네가 죽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땅으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야는 멸시받는 깨진 항아리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알지 못하는 땅에 던져짐이뇨? 땅아, 땅아, 땅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22장 30절에서 여호야긴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왕이 되어 다시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좋아요, 여기 여호야긴의 이미지가 몇 개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그는 깨진 항아리, 쓸모없는 도자기 조각에 비유되었는데, 도자기는 매우 흔하고 온갖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간단히 옆으로 버렸습니다. 여호야긴은 매일 옆에 버려지는 항아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중 누구도 그의 뒤를 이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는 자녀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중 누구도 왕좌에 앉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라.

나는 당신의 라인을 영원히 보존할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자신을 계승하거나 대신 왕좌에 앉을 아들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련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또 다른 이미지는 여호야긴을 하나님의 인장 반지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인장 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장은 사용된 왕의 인장이었다. 인장은 서명이나 권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토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왕 자신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나와 다윗의 왕들인 다윗과 맺은 관계에서 그들은 나의 인장반지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채택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인간 부섭정들이다. 그들은 나를 위해 정의를 집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부섭정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야긴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인장 반지를 취하여 내 손에서 빼어 버리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다윗의 집에 있었던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사로잡혀 평생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갇혀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 이르면, 예레미야서에 묘사된 마지막 사건, 마지막 에피소드는 열왕기하 25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읽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기원전 560년에 여호야긴이 멸망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18세였습니다.

그는 37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났고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18세 노인이 사로잡혀 가는 동안 유다 백성이 어떤 종류의 회복을 기대하던 대부분의 희망은 여호야긴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죄수이고, 더 이상 왕이 아니지만, 비록 그가 18세이고 단지 3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 가계의 희망과 미래를 대표합니다. 예레미야 52장과 열왕기하 25장에서 이 책의 마지막 사건은 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 왕의 상에서 식사하는 것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읽은 내용을 확증하는 또 다른 성서 외 출처인 바빌로니아 본문은 같은 시기의 배급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과 그의 아들들에게 식량이 주어졌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받고, 좋은 대접을 받고, 왕의 상에서 식사를 허락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이야기와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본 성경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우리는 여호야긴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열왕기와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내는 것은 그것이 아주 최소한의 것이고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이 다윗 가계의 생애 말년에 보여준 친절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윗 가계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희미한 희망의 빛입니다.

우리는 성경 기자가 단순히 여호야긴이 사로잡혔고, 그는 포로였으며, 그곳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는 회복에 관해 유망한 세부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매우 우울한 방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언급된 마지막 사건은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석방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마지막 막이 끝나기 전에 끝나는 TV 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Kings는 실제로 귀환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행동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대해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597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의 마지막 11년 동안 그들은 다윗 가계의 마지막 구성원인 시드기야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시드기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 영상도 복습해보고 싶어서 몇 분간 이것만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에 의해 왕좌에 앉혔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597년 현재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여전히 그들의 통치하에 실행 가능한 지방이자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좌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왕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을 성취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약한 통치자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과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 사이를 왔다갔다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에게 당신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쟁 노력이 성공할 방법은 없습니다.

바벨론에 복종해야 합니다. 588년 바벨론이 마침내 침공하고 18개월이 지나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결과, 저항을 부추기는 시드기야의 신하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38장의 그 구절로 돌아가서 예레미야는 우리 군인들의 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에 동조하여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 21장,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7장, 예레미야 38장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는 곳에서 이런 종류의 좌절감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 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를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시드기야 옆에 두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적대감과 분노로 불순종했습니다. 한 사람은 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벨론 성이 함락되거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느니라. 시드기야는 도망치려 했으나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처형됩니다.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가 사로잡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죽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모든 의도와 목적으로 볼 때, 마지막 왕들에 대한 조사인 이 역사의 끝이 다가옴에 따라 마치 다윗 혈통이 끝난 것처럼 보이며, 이는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을 더욱 놀랍게 만듭니다. 장차 다윗의 가계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0장, 여호와께서 백성을

바벨론의 속박의 멍에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들은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 계통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인장반지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여 여호야긴의 손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여호와의 인장반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 다윗의 지도자를 데려가서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다시 끼우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 스룹바벨은 왕이 되지 못하였지만, 왕이 될 분이 누구인지, 다윗의 집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인장 반지가 될 것인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서 다윗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봅니다. 우리는 또한 희망의 약속을 봅니다. 이는 예레미야 메시지의 맥락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네 번째 발표에서 Dr. Gary Yates입니다. 이번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과 예레미야서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